



2024년 3월 넷째 주

다락방교안

다락방

이름

지난 주 다락방통계

모임인원

1교구	1-1 송재환 /	1-2 서대경 /	1-3 이정숙C 5명	1-4 임진순 3명	1-5 노종섭 /
	1-6 김한암 /	1-7 최지혜 7명	1-8 백용성 6명	1-9 김선흠 7명	1-10 맹효순 5명
	1-11 심태인 3명	1-12 천미온 /	1-13 강장용 12명	1-14 곽원철 5명	1-15 심미연 4명
	1-16 이용의 5명	1-17 안영순 /	1-18 박영춘 5명	1-22 임은심 4명	1-23 김종섭 2명
2교구	2-1 양성수 /	2-2 강형미 /	2-3 김지철 /	2-4 박양수 /	2-5 김원진 7명
	2-6 최정순 5명	2-7 이재호 11명	2-8 문병수 7명	2-9 김명미 /	2-10 김기호 5명
	2-11 강길남 /	2-12 오경숙 8명	2-13 소인수 5명	2-14 윤재용 6명	2-15 장진아 7
	2-16 박향숙 /	2-17 이삼남 /	2-18 정강석 6명	2-19 최혁산 /	2-20 강신배 /
	2-21 조재숙 /	2-22 이희승 /	2-23 박진현 6명	2-24 오명란 3명	
3교구	3-1 김준영 7명(4명)	3-2 문훈희 /	3-3 송 철 8명(4명)	3-4 오상민 4명	3-5 김명천 10명
	3-6 성영애 3명	3-7 이길재 6명(1명)	3-8 김경신 /		

주일 설교 본문

본문 마가복음 14:22-25

제목 예수님이 차려주신 한 끼!

개역개정

22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5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공동번역

22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23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건네시자 그들은 잔을 돌려 가며 마셨다.
24 그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25 잘 들어 두어라.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나는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마음의 문을 열며



♪ 찬양 ... [찬송가] 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 다같이

1.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감사했던 일을 한 가지씩 나누어 봅시다.

말씀의 문을 열며



2. 고난주간새벽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받은 은혜를 한 가지만 이야기 해 봅시다.

3.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 중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2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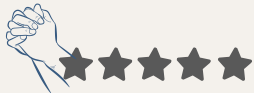
4. 교회에서 성찬식을 진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됩니까? 또, 그 동안 성찬식을 통해 받은 감동이나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5.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성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21)

6. 성찬에서 받는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22, 23)

7. 성찬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명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고전 11: 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도는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문을 열며



♪ 찬양 ...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 다같이

1.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2. 결혼을 위한 축복기도: 김경남(김만수 집사, 김명숙 권사 차남) 이유진(이경남 집사, 서미화 권사 차녀)
맞잡은 손 하나님께 잡아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날이 이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어떤 유혹과 아픔 속에서도 신뢰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소서.

3.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유치부]: 김지은 전도사, 박소윤 부장집사

1. 예수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2. 각종 전염병과 감기로부터 지켜보호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소서.
3. 말씀과 기도로 가정이 회복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유치부가 되게 하소서.